어깨 빠진 이시영 판정패

metro

메트로 2013년 10월 22일 화요일

디스크 '레이저 시술' 각광

두 사내의 입씨름… 누구 말이 맞을까 조영곤(왼쪽) 서울지검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실무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충격 발언'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음악도 드라마도 '모바일 대세'

카톡 친구와 함께 듣는 카카오 뮤직 한달도 안돼 500만
아이돌 스타 등 A급 출연진 내세운 전용드라마도 제작

모바일 플랫폼이 가진 포용력은 어디까지일까. 적지 않은 콘텐츠가 모바일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콘텐츠들이 이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IT 역사를 새로 쓴 카카오가 '카카오뮤직'이라는 음악 서비스로 또 한 번 모바일 세상을 흔들고 있다.

지난달 25일 등장한 이 서비스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500만 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국내 음원 서비스 시장은 멜론, 엠넷, 벅스와 같은 유명 업체들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전형적인 레드오션이다.

◆음원포털 '멜론' 아성 넘봐

카톡 사용자가 1억 명이 넘는 덕에 500만회라는 수가 왜소해 보일 수 있지만 현재 1위인 멜론의 주간 앱 설치자 수가 1000만 명(아이코리안 클릭 10월 둘째 주 기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용률을 보면 카카오 뮤직의 내일은 밝다. 이 기간 멜론은 28%, 카카오뮤직은 4%를 기록했다.

카카오 뮤직이 카톡의 방대한 친구 관계에서 출발하는 특징을 이해하면 이러한 해석에 더욱 힘이 실린다. 자신이 만든 뮤직룸을 통해 친구와 음악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나눔과 공유'의 방식이다.

즉 음원을 구입한 A라는 친구가 있다면 A의 친구인 B, C, D 등은 A의 플레이 리스트에 있는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B, C, D 역시 A에게 신세(?)를 진 만큼 음원을 추가로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카톡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유저라면 쉽게 카카오뮤직이 고객이 될 수 있다.

물론 멜론 등 기존 브랜드 역시 스마트폰용 앱이 있지만 이는 온라인 버전의 변형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카카오뮤직의 경우 인기 순위 차트 상위권 음악이 아닌 친구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 '소셜 음악 서비스'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지상파·케이블 재방 NO"

급기야 모바일에서만 볼 수 있는 전용 드라마도 등장했다. 지상파나 케이블 TV에서 방영됐던 작품을 모바일에서 재방송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획·제작 단계에서부터 모바일 방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다음은 자사의 모바일 콘텐츠 유통 플랫폼 '스토리볼'에서 모바일 드라마 '러브포텐-순정의 시대'를 11월 4일부터 6주 동안 방영한다.

출연 배우도 기대 이상이다. 인기 아이돌 엠피니트의 성열과 포미닛의 남지현, 섹시 스타 클라라가 주인공이다. '러브포텐'은 인기 소설 '공대생의 사랑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며 모태 솔로 남성이 학교 최고 미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순정을 바친다는 내용이다.

A급 출연진, 검증된 원작이라는 흥행 요소를 갖춘 드라마를 모바일에서 방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백성준 다음 제휴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젊은층이 선호하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처음 방영하는 드라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020세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들이 출연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미 다음은 영화 '미생'으로 모바일 플랫폼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역시 모바일 전용이었던 '미생'은 첫 편부터 30만 명이 관람하는 등 원작자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박성훈기자 zon@metroseoul.co.kr

---

◆서울 시민 우울증 연령별 자가테스트 결과 (출처:서울시)

20대	1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34.13	34.02	32.38	30.12	26.78	25.63	25.56

그래픽 박성현 sophie@metroseoul.co.kr

서울시민 대부분 가벼운 우울증

20대 미혼여성 가장 심해

서울 시민 대부분이 경증 우울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21일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마인드스파 홈페이지(http://www.mindspa.kr)에서 우울증 자가 테스트에 참여한 서울 거주자 1만8745명을 분석한 결과, 우울 정도를 재는 평균검진점수가 33.07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울증 자가 테스트 결과 0~20점은 정상이지만, 21~40점은 경계 및 경증 우울증, 41~60점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서울 거주자는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경증 우울증군에 속했다.

연령별로는 20대(34.13점)가 가장 높았고, 10대(34.02점), 30대(32.38점), 40대(30.12점), 50대(26.78점)순이었다.

우울 정도는 남성(30.59점)보다는 여성(34.16점), 기혼(30.7점)보다는 미혼(33.6점)이 높았다.

/김민준기자 mjkim@

눈 감고 선서 '역외탈세' 의혹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2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아그라 vs 팔팔정

기자 수첩

황재용 <생활경제부 기자>

때아닌 '비아그라' 전쟁이 벌어졌다. 한국화이자는 지난해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올 4월 서울고법에 항소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법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1심 재판부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미약품이 상고의 뜻을 밝혔다.

사실 비아그라는 대한민국 남성 질환의 혁명을 가져왔다.

성생활 관심도는 세계 1위지만 병원 방문은 가장 꺼리는 한국 남성들이 발기부전을 남성 질환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남성 질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올바른 인식이 시작됐고 그 시장 역시 점차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아그라의 특허가 만료되자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남성 질환 시장 진출을 서둘렀다.

하지만 정작 발기부전 시장의 두 축을 담당하는 한국화이자와 한미약품은 소송에서 승리할 욕심뿐이다. 서로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만 있지, 질환과 치료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목적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윤과 특권이라는 측면은 이해하지만 국민 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약사가, 그것도 올바른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 남성 질환 시장에서 이 싸움은 넛가의 마무리지 격이다.

"남성 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올바르게 질환을 이해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처음 치료제를 출시하며 외친 자신들의 이야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지청장 "4차례 재가 받았다" vs 조영곤 지검장 "정식 보고 아니다"

공소장 변경 '진실게임'

21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는 자신의 직권으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뜨거웠다.

윤 지청장은 이날 조영곤 지검장과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지휘 체계' 수사 외압 여부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보고 과정과 관련해 윤 지청장은 "공소장 변경 신청은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해 15일 밤 검사장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은 4차례 검사장의 재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과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 보고가 아니다. 집에서 윤 지청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깊이 검토하지고 돌려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고 말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당 의원들은 윤 지청장의 발언에 대해 '제2의 검란' '항명'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나. 이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지청장은 지난 16일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 및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와 대립했다.

이어 17일 주거지 4곳 압수수색과 함께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18일 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윤 지청장은 특별수사팀 업무에서 배제됐다.

◆공소장 변경 허가 30일 결정

한편 법원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공판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30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1일 검찰과 변호인 측에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 30일 오전 11시 공판 기일을 추가 지정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only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곧 수사 전환

국방부가 지난 총·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국군사이버사령부 관련 사건을 곧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1일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하는 일정을) 아직 확정 짓지 않았다"면서도 "곧 수사로 전환하고 이에 앞서 중간 조사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일(22일) 오후쯤 중간 설명 정도로 이야기하겠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 가운데 확인된 것과 앞으로 계획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지난 15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김관진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합동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군 수사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사는 군 검찰 또는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맡게 되며 경우에 따라 검찰과 조사본부가 함께 수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여성건축가협 심포지엄 24일 자이갤러리서 열려

한국여성건축가협회(회장 권영숙)는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이갤러리 1층 그랜드홀에서 고령자를 위한 '지역가족복지센터' 공간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지역내 아동과 노인 세대 교류 거점이 될 세대교류형 지역가족복지센터 도입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공간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축·커뮤니티 전문가,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581-1340

서상기 '1인2역 셀프국감'

교문위 소속 감사위원겸 피감 생활체육회장 논란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감사해야 할 피감 기관장으로 국회에 출석, 동료 의원에게 증인선서를 하는 상황이 연출돼 논란이 일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은 교문위 소속 여당 감사위원이면서 피감 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장 자격으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 의원 겸직 문제를 두고 약 50분 동안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현역 의원이 피감 대상인 공공기관장직을 겸직하는 것이 정치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서 의원이 교문위 국정감사 감사위원인데 피감 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증인으로 선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혹스럽고 황당한 심정"이라며 "국민생활체육회는 올해만 421억원을 국고 지원받는 엄연한 공공기관으로서 의원은 마땅히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서 의원은 상근하면서 월급받는 게 아니기에 겸직 금지 조항(국회법) 적용 여지가 남아있고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때는 시·도 보임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illegible]기자

오전엔 빨간색 오후엔 분홍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21일 국정감사위원, 동시에 피감 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장으로서 증인으로 출석해 '넥타이 색이 흑적 혼당을 상징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오후 감사에서는 분홍색 타이로 갈아 매고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막 퍼주는 공무원연금

변호사·세무사 등 고소득 수급자에게 5년간 1조 2000억 연금 지급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돈 버는 수급자에게 연금으로 1조 2000억원을 퍼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 후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최근 5년간 1조2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 지급액은 2009년 2231억원, 2010년 1918억원, 2011년 1936억원, 2012년 1949억원, 올해 8월 말 현재 1958억원 규모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법정 감액 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의 2분의 1 이내에서 급여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35만9317명에게 5조9901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중 3.5%인 근로소득 발생자 1만2659명에게는 1958억원을 줬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중 60~64세에 한해 공무원연금처럼 일정 부분을 감액해 연금을 지급하고 65세 이후에는 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공무원연금기금의 누적 적자가 9조8000억원인 점을 고려해 퇴직 공무원 중 변호사나 세무사, 관세사 등 자격증을 가진 고소득자의 감액 기준에 대해서는 감액 금액을 조정하는 등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으로 2조4854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액수가 2015년 3조원, 2017년 4조원, 2019년 5조원을 돌파해 2020년에는 6조2518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유현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수능·입시철 맞아 발길 잇는 도정탑 한 여성이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여 26년간 돌탑 3000개를 쌓아 이름 붙여진 도정탑에 수능·입시철을 맞아 합격을 비는 공부객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여성이 21일 도정탑이 세워진 강원도 강릉 ○산면 대기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입 탄산수 '가격거품' 잔뜩

생수도 최대 8배 부풀려

수입 생수와 수입 탄산수가 수입원가보다 최대 8배가량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우리나라 병입수 수입현황'과 '최근 3년간 수입 탄산수 1~10위 현황' 등의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내 들어온 생수의 시중 유통 가격은 수입 단가보다 훨씬 높았다. 오스트리아산 '뫼할드밀크 베이비워터(1000㎖)'는 수입 가격(관세 포함)이 1병당 447원이었지만, 시중에는 8.4배나 높은 3750원에 팔리고 있었다. 캐나다 심수안 '캐나다아이스 아이스블드(500㎖)'의 수입 단가(관세 포함)는 248원이지만, 시중 판매 가격은 8.1배 높은 2000원이었다.

수입 탄산수도 마찬가지였다. 독일산 게롤슈타이너 스프루델(330㎖)의 수입 단가(관세 포함)는 347원이지만 시중에는 이보다 7.2배 높은 2500원에 유통됐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불법 '1+3 유학 프로그램' 속지 마세요

교육부가 금지한 '1+3 유학 프로그램'이 사설 유학원 사이에서 여전히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교육부는 "미국 주립대 정규 학생으로 국내에서 선발해 국내 대학에서 1년간 교육한다"고 광고한 유학원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 정규 학생으로 선발돼 1년간 국내 대학에서 국제 교류 학생으로 영어·교양 수업을 수강하고 미국 대학에서 2학년으로 진학하는 과정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폐쇄한 1+3 유학 프로그램과 유사하며 연간 2000만~2600만원의 고액 등록금을 요구해 학생·학부모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유학원 홈페이지는 뉴욕주립대, 캘리포니아주립대 등 미국 18개 명문 주립대와 서울대·고려대·한국외대 등 국내 25개 대학이 교류를 맺고 진행하는 국제 교육 교류제도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해당 외국 대학 확인 결과 국내 대학에서 교육 중인 학생은 해당 외국 대학으로 편입해야 정규 학생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기자

아자자 스타일 구긴 모델 한 모델이 21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IFC몰에서 열린 '2014 S/S 서울패션위크' 이승희 디자이너(LEY 쇼)의 패션쇼에서 구두끈을 고쳐 매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4대강 사업 이후 이들을 본 적 있나요

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28종 사라져

위부터 모래주사(?) 남생이 흰수마자 /연합뉴스

4대강 사업 이후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를 포함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총 28종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민주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환경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3년차에 진행된 2012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4대강 사업 이전 발견된 총 49종의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가운데 4대강 사업 이후 28종이 사라졌다. 사라진 생물은 조류 23종, 포유류 3종, 양서·파충류 2종이었다.

조류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총 41종의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조사됐으나 지난해에는 이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진 18종만이 발견됐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로는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참수리, 황새 등 총 4종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로는 개리, 검은머리물떼새, 뜸부기, 한국개구리매 등 4종이 사라졌다.

이 밖에 천연기념물로 단일 지정된 검독수리, 두견, 소쩍새, 쇠부엉이, 수리부엉이, 큰소쩍새, 사도요 등 7종,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으로 단일 지정된 벌매, 붉은가슴흰죽지, 새홀리기, 알락꼬리마도요, 잿빛개구리매, 큰덤불해오라기, 큰말똥가리, 흰죽지수리 등 8종도 발견되지 않았다.

포유류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가 상류에서 발견됐고 하류에서는 물범이 출현하기도 했지만 2010년 이후 수달과 삵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모두 사라졌다. /김○○기자 mlum@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률

서울 가는 알타리무 21일 강원 평창 진부읍 일대에서 수확된 알타리무가 간단한 세척을 거친 뒤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으로 가는 트럭에 실리고 있다. /뉴시스

이유식에서 납 검출

국제식품기준 10배나 초과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 영유아용 조제식 납 검출 현황'에 따르면 이유식 등 영유아가 먹는 조제식 가운데 납이 검출된 제품은 100개(9월 기준)에 달했다. 이 가운데 납이 든 영유아 조제식은 총 80개, 성장기용 조제식은 20개였다.

특히 영유아용 조제식에서는 최대 0.2ppm의 납이 검출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유럽연합의 기준인 0.02ppm을 훌쩍 넘기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기용 조제식의 납 검출량도 최대 0.033ppm으로 국제 기준치를 초과했다.

물티슈는 세제 취급

샴푸·린스성분 무분별 사용

아이들이 많이 쓰는 물티슈 역시 성분 관리가 성인 화장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30가지 물티슈를 조사한 결과, 성인 화장품에서 함량이 제한되는 성분들이 아무런 기준 없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30개 제품 가운데 17개 제품에서 소듐벤조에이트가, 16개 제품에서는 데하이드로아세틱애시드가 검출됐다.

이들은 주로 샴푸, 린스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많이 사용할 경우 접촉성 피부염, 홍반, 알레르기 증상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될 때에는 0.05~0.6%의 함량 기준을 지켜야 한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지하 40m에 지름 7.5m 대심도 터널 설치공사 한창

화곡동 장대비 와도 걱정 끝!

서울시 강서구가 화곡동 저지대의 만성적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항구적 수해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화곡동은 지난 2010년 9월 시간당 95㎜의 폭우가 3시간 동안 쏟아지자 3000여 가구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화곡1·2·3·4·8동 저지대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어김없이 침수피해를 입던 만성적 침수지역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서구는 화곡동과 신월동 저지대의 우수는 지하 터널을 이용해 안양천으로 직접 내보내는 방안을 마련했다.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사업'으로 지하 40m에 지름 7.5m 규모로 연장 3.6㎞의 지하 터널을 대심도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터널 규모도 시간당 95㎜의 30년 빈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사업은 13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5월 공사에 들어갔으며 2016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와 가양동 등촌동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강서구청사거리~가양 빗물펌프장 구간과 가양아파트~가양빗물펌프장 구간의 하수암거 정비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공사는 2015년 말에 완공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이번 터널 공사로 화곡동의 만성적인 침수 피해는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현정기자

노현송(오른쪽) 강서구청장이 가양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공사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2011-서울강남-0163]

대출!!!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거절된적 있으십니까?
100만원 누구나! 무상담대출

저도 되네요!
완전 쉽던데요!
정말 빠르고
편리하네요!

market index <21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53.01 (+0.61)	529.34 (+3.63)	2.84 (+0.02)	1062.00 (변동 없음)

만 19세되면 부모 동의 없이 집 살 수 있다

앞으로 만 19세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관련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청약 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되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를 반영해 19세 이상인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또 민간건설 분양을 할 때 주택의 분양 시기와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입주자 분할 모집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 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은 별도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우선 공급을 허용하고, 주택 당첨자에게는 개인별 문자 서비스도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윤신사기자

뉴스&뉴스

서울의 건축 매력 속으로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3 서울건축문화제에서 시민들을 비롯한 관람객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월세 거래비중 역대 최대

● 지난달 거래된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지난 2011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에 거래된 전월세 아파트 중 월세 비중은 34.2%로 정부가 전월세 거래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 8월의 33.8%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윤신사기자

8월 기준 세수 6조 부족

● 8월 말까지 세수 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6조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8월 말까지 세수가 1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9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진도율은 65.1%로 2011년 8월 71.8%, 2012년 70.9%보다 낮았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로 45조9621억원, 소득세로 49조7602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재곤기자

차보험료 연내 인상 없다

● 금융 당국이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적자 급증에 따른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올해 보험료 인상은 어려운 대신 적자폭이 큰 손보사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2013 회계연도 들어 8월까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적자는 3398억원이다. /윤신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852-2100
독자센터 02)721-9855
2005년 1월 3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바00036

요즘 아파트 인기 '색칠하기 나름'

최근 분양 단지들 디자인 트렌드 '컬러'로 고객 유혹

아파트가 화려하고 컬러풀한 색채로 변신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외벽은 으레 회색빛 모양에 무채색으로 꾸미는 것으로 생각해왔지만, 최근에 짓는 새 아파트는 고급스러움과 다양한 색채 디자인을 아파트 곳곳에 입혔다.

이처럼 건설업계에 디자인 경쟁 바람이 부는 것은 아파트 청약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아파트 외관이 분양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획일적 디자인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모델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강서 힐스테이트'는 각 동마다 빨간색이나 녹색 등을 적용한 화려한 외관으로 꾸며졌다. 세계적인 색채 디자이너 장 필립 랑클로와 손잡고 '힐스테이트 통합 색채 디자인'을 선보인 결과물이다. 지상 1~3층은 짙은 갈색, 4~6층은 자주색, 7~9층은 주황색, 10~11층은 오렌지색, 12·15층은 연노란색, 16층 이상은 아이보리와 흰색으로 칠해 색깔이 서서히 번지기는 효과를 냈다.

대우건설의 '서수원 레이크 푸르지오'는 부드러운 초록색과 파란색, 주황색으로 건물 외벽에 색을 입힌 계획이다. 최근 분양한 삼성물산의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은 입부 동에 마포나루 황포돛대를 형상화한 옥탑 프레임을 설치해 강변북로에서도 눈에 잘 띄게 외관을 특화시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급스럽고 세련미를 갖춘 아파트는 주거 여건의 만족도는 물론 향후 아파트 단지의 척도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주변 단지와 차별화하는 데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in@metroseoul.co.kr

한우 통 우족이 9500원 21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도우미들이 롯데쇼핑 창사 34주년을 맞아 한우 통우족과 통사골(개당 1.3kg 내외)을 정상가 대비 50%가량 저렴한 각 950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뉴시스

10대그룹 시총 5개월새 30조 증가

지난 연말보다 12조 늘어

10대 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올 들어 1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지난 16일 현재 750조682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738조649억원보다 12조33억원(1.63%) 증가했다.

특히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했던 지난 5월 초(713조1992억원)와 비교하면 5개월 반 만에 3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그러나 전체 시가총액에서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57.08%로 전년 말의 58.42%보다 1.34%포인트 감소했다.

그룹별로는 현대중공업그룹 시가총액이 21조4660억원에서 25조4150억원으로 18.40%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SK그룹(16.24%), 현대자동차그룹(11.07%), 한화그룹(1.73%)도 시가총액이 늘었다.

반면 한진그룹 시가총액은 5조3426억원에서 3조9925억원으로 25.27% 줄어 10대 그룹 가운데 시총 감소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시총 감소율이 높은 곳은 GS그룹(-13.58%), 포스코그룹(-10.77%), LG그룹(-5.71%), 롯데그룹(-2.59%), 삼성그룹(-1.77%) 순이다.

10대 그룹 계열사 중에서 올 들어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LG그룹 소속 LG하우시스로 연초 대비 64.14% 올랐다.

이어 한화다임월드 주가가 54.85% 상승했고 SK텔레콤(54.43%), GS홈쇼핑(54.23%), 호텔신라(47.90%), LG유플러스(46.79%)도 상승률 10위 안에 들었다.

반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어닝쇼크'를 낸 삼성엔지니어링(-52.33%)이었다. /김현정기자 hjkim1@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복지 정규직 대우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이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5개 공공기관에 최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용 안정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적용토록 지시했다. 복리후생비 등 처우 측면에서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했다.

다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하거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전환 시기 조정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재정으로 지원키로 했다.

기재부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이후에는 정원의 5% 범위에서만 운용토록 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환 대상 업무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연중 계속되는 형태로, 과거 2년 이상 지속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했다"며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업무에는 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국혜기자 lonlox@

17세기 파리, 남자의 전설이 부활한다!

10월 29일 1차 티켓오픈

2013.12.13~2014.2.2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www.musicalthreemusketeers.com

살아나는 유럽, 펀드 보니 '호호'

올들어 수익률 15% 넘어 북미 이어 두번째 높아 "투자 전망 긍정적"

유럽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유럽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해외 주식-펀드 중 유럽 주식 펀드는 연초 이후 15.65% 올라 북미주식 펀드(24.58%)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 신흥국 주식과 신흥 아시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각각 1.26%, 2.79%에 그쳤다.

유로존 재정위기로 바닥을 친 유럽 경기는 최근 7분기 만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회복의 실마리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럽에 투자하는 개별 펀드의 수익률도 양호한 편이다.

순자산 10억원 이상인 개별 펀드의 성과를 살펴보면 '템플턴유로피언증권자투자신탁(E)(주식)'이 연초 대비 23.45% 올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템플턴유로피언증권자투자신탁(주식)클래스 A'(22.98%), '한화유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H(주식)종류A'(20.60%), '슈로더유로증권자투자신탁A(주식)종류 C5'(20.14%) 등의 수익률도 20%대를 나타냈다.

유럽 펀드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진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을 타고 유럽 펀드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올 들어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썰물처럼 자금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유럽 펀드에는 연초 이후 553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개별 지역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 펀드로는 1323억원의 자금이 들어온 북미 펀드와 함께 유일하게 자금 순유입을 기록 중이다.

유럽에 투자하는 새로운 금융투자 상품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유럽 경기 부양 수혜주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투자유럽경기회복수혜목표전환형 펀드'를 출시했다. 펀드 계약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목표 수익률 8%에 도달하면 편입했던 유럽 주식을 전액 매도하고 국내 채권 상장지수펀드(ETF)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관리하는 상품이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유로 스톡스(stoxx) 50' 지수를 추종하는 '신한BNPP유로인덱스펀드'를 출시했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에 선진 시장 비중을 늘리고 신흥 시장을 줄이는 종전 투자 전략을 유지한다"며 "특히 유럽은 실물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경기 회복 수준에 대한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노탕 힐의 주인공 된 '갤노트3' 삼성전자는 유명 영화 '노팅 힐'의 배경이 된 영국에서 갤럭시노트3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 런 유어 라이프'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노팅 힐의 배경이 된 포토벨로거리의 미용실, 네일숍, 정육점을 포함한 다양한 쇼핑몰과 협약을 맺고, 이곳을 찾는 고객에게 19일부터 5주간 갤럭시노트3를 활용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전자 제공

네이버·구글 주가 새 역사

한국의 '공룡 포털' 네이버와 글로벌 '검색 공룡'인 구글이 나란히 상장 이래 최고 주가를 경신했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네이버는 전 거래일보다 2만5000원(3.91%) 오른 66만5000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68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8월 29일 NHN에서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로 분할 상장한 이후 첫 거래일에 48만원의 종가를 기록하고서 2개월 만의 최고가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가파른 성장세가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거론됐다.

KB투자증권은 이날 라인의 일본 시장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종전 67만원에서 72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구글이 사상 처음으로 주당 1000달러를 넘겼다.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에서 구글은 주당 1011.41달러에 장을 마쳤다.

지난 2004년 주당 85달러에 상장됐던 것과 비교하면 10배가량 불어난 수준이다. /김현정기자 hjkim@

훈풍 부는 IPO시장 '대어' 현대로템 뜬다

기업공개(IPO) 시장에 훈풍이 돌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증시에 새로 상장된 21개 종목 중 7개 종목(81%)의 18일 기준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다.

이 같은 공모주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올해 IPO 시장 '대어'로 꼽히는 현대로템이 30일 상장을 앞두고 22~23일 청약을 진행한다. 내츄럴엔도텍(21~22일), 해성옵티스(22~23일), 에이씨티(30~31일)도 청약을 앞두고 있고 테스나는 22일 증시에 입성한다. 원상필 동양증권 연구원은 "현대로템이 흥행을 해주면 하반기 공모주 시장은 크게 달아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뉴스 & 뉴스

구직자의 무거운 가방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3 코스닥 상장기업 취업박람회'가 열린 가운데 전시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올들어 159억대 지폐 폐기

● 올 들어 찢어지거나 더러워져서 폐기된 지폐가 무려 1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올해 1~9월 폐기된 지폐가 총 3억4700만 장으로 액면가로는 159억61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폐기된 5만원권의 액면가는 8억63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 폐기액(8억5400만원)을 넘어섰다. 폐기된 1만원권도 109억16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폐기액의 96.2%에 달했다.

한은은 지폐에서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폐 폐기액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백산·KT 등 배당 기대종목

● 배당이 이뤄지는 가을을 맞아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21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한 결과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사는 백산이었다.

백산의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6.16%로 비교 대상 종목 중 가장 높았다. 이어 KT(5.51%), 하이트진로(4.88%), KT&G(4.15%)도 4~5%대 배당 수익이 기대됐다.

SK텔레콤, 에쓰오일(S-Oil), 삼성엔지니어링, 지역난방공사 등은 3%대가 예상됐다. /김현정기자

"4년제 입학 후회" 75% 답해

● 대학생 4명 중 3명이 대학 입학을 후회한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지난 17~18일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20대 7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4.8%(593명)가 '4년제 대학교 입학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유로는 '4년 동안 공부했음에도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해서'라는 답변이 46.7%로 가장 많았다. '취업이 어려워서'(28.8%), '대학 등록금 때문에'(9.4%) 등을 거론한 대학생도 많았다.

대학 졸업 후 전문대 진학을 고려해봤다는 응답자도 31.3%에 달했다. 특화된 분야의 기술 습득(64.8%), 취업(23.1%),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과의 만남(9.7%)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국명기자

스마트폰 첩보전 "지문을 보여줘"

사생활보호·보안기능 갈수록 첨단화 ·"내년 갤S5 홍채인식 가능성"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 보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문인식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 HTC, 팬택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이미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에 지문인식 기능을 탑재했다. 업체들은 이 지문인식 기능을 활용해 스마트폰 분실 시에도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미 애플은 지난달 공개한 '아이폰5S'에 지문인식 센서를 장착했고, 앞서 팬택은 지난 8월 세계 최초의 지문인식 스마트폰 '베가 LTE-A'를 선보였다. 최근 출시한 5.9인치 패블릿 '베가 시크릿노트'에는 지문인식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HTC 역시 최근 출시한 '원 맥스'에 베가 LTE-A와 비슷한 후면 지문인식 기능을 탑재했다.

지문인식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사진, 동영상 등 개별 콘텐츠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지문인식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삼성의 경우 스마트폰 보안장치로 눈동자(홍채)인식센서 도입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는 내년 초 공개될 '갤럭시S5'에 장착될 것이라고 안드로이드S&S, GSM아레나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하기도 했다.

아레나는 "삼성 측은 함구하고 있지만 홍채인식 관련 루머가 사실이라면 갤럭시S5는 아이폰5S 등이 장착한 지문인식 기능보다 상당히 높은 차원의 보안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G2'에 잠금 기능에 따라 '일반 모드'와 '게스트 모드'로 나눠 기기를 2가지처럼 쓸 수 있도록 하면서 보안성을 강화한 LG전자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지문인식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비용 대비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 하지만 최근 애플, HTC, 팬택이 가세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마저 이 같은 기능을 도입할 경우 LG전자의 향후 스마트폰 모델에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문인식 기능 등 한층 강화된 팬택 '베가 시크릿노트' /뉴시스

문지욱 팬택 부사장은 "지문인식 기능은 향후 스마트폰 기능이 갖춰야 할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향후 보안성이 보다 강화되면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개인 확인 절차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jy0403@metroseoul.co.kr

정몽구 회장 유럽행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1년7개월 만에 유럽길에 오른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정 회장이 21일 유럽으로 출국해 현대자동차 러시아공장과 체코공장, 기아차 슬로바키아공장을 방문해 현지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품질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 총괄법인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판매 전략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지난 7월 열린 해외법인장 회의에서 '답은 해외에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시장을 강조했다. 이번 유럽 방문은 지난해 3월 이후 19개월 만으로 주요 자동차 시장인 유럽 내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유럽에서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인지도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다.

/장윤희기자 unique@

21일 열린 프리스케일 제품 설명회에서 홍보모델로 위촉된 클라라(오른쪽)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프리스케일 제공

운전계기판으로 동영상 본다

프리스케일 스마트 제품

내년부터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 음악, 동영상 등을 스마트 계기판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

프리스케일은 21일 서울 소공동에서 설명회를 열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계기판 제품군을 소개했다. 프리스케일은 1948년 모토로라 반도체 사업부로 시작해 2004년 분사하면서 설립된 다국적 반도체 기업이다.

프리스케일 제품은 운전자가 직접 원하는 지도, 동영상, 연비 확인 등의 기능을 스마트폰 위젯처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기존 내비게이션은 맨 처음에 설정된 기능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들 제품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자체 스토어에서 각종 앱을 인터넷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와이파이로 스마트폰과 연동해 원격 이용도 가능하다.

프리스케일 데이비드 유즈 부사장은 "현재 한국 자동차 일부 신형 모델에 프리스케일 계기판이 탑재된 상태며 내년부터 양산되는 대부분 모델에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영화관 벽면까지 삼면이 스크린

"영화관 전체 벽면을 통해 영화가 상영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CT)대학원 노준용(42) 교수 연구팀은 CJ CGV와 공동으로 몰입감을 제공하는 멀티프로젝션 기술 'CGV 스크린X'를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CGV 스크린X는 극장 화면의 경계를 넘어 전면 스크린은 물론 좌우 벽면에 확장된 영상을 투사해 관객들의 시야를 꽉 채우기 때문에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미래형 상영관이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기술은 할리우드를 비롯한 전 세계 극장에 역수출이 기대된다.

/이재영기자

KT 선불식 '주머니 카드' 출시

앱 '주머니'서 신청하면 오프라인 주소로 배송돼

KT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급받아 선불카드처럼 금액을 충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머니 카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머니 카드는 은행 방문 및 은행 계좌가 없어도 스마트폰 현금지갑인 '주머니' 앱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분실 신고나 이용 정지도 직접 앱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결제 시 받는 문자뿐 아니라 주머니 앱에서 결제 금액 및 잔액, 캐시백 [illegible] 모두 [illegible]

주머니 카드는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고, 미리 충전한 금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부모들이 자녀 용돈 관리 목적으로 활용할 때도 유용하다.

또한 직장인은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말까지는 전월 사용 실적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 시 5% 캐시백(월 5000원 한도)도 제공하기 때문에 소액 사용자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머니 카드는 주머니 앱에서 신청하면 본인이 등록한 주소로 배송된다.

/서예진기자 syj403@

마을방송도 죄? 이장님 당황시킨 법 개정

최근 시골 마을회관에서 전해지는 이장들의 방송이 휴대전화다 휴대용 수신기를 통해 방송되고 있지만 전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미래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이장들은 자신의 집이나 마을회관 등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이동하면서도 마을 방송을 하고 있다. 이장 집이나 마을회관 등에 무선 간이국을 설치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결해 주민들의 가정에 있는 단말기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처럼 간이 무선국을 휴대전화에 연결하는 기술 자체가 현행 전파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벗어나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래부는 이를 제재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달 초 개정안을 행정 고시해, 마을 이장이나 읍·면·동사무소 근무자 등 특정인의 휴대전화에 한해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이동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재영기자

반갑다! '돈 굳는' 프린터

이력서·리포터 등 출력 많은 대학생 위한 경제적 복합기 제품들 눈길

아무리 무선·모바일 시대라 해지만 아날로그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취업을 해야 하는 구직자, 과제물을 내야 하는 대학생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리포트 등의 문서를 직접 출력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이나 대학에서는 '날것의 종이'를 선호하고 있다. 결국 수십 장의 문서를 뽑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프린터·복합기 제조사들이 맞춤형 제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브라더 흑백 레이저 복합기 'DCP 1510'(사진)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내구성, 저렴한 유지 비용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제품으로 통한다.

보통 컬러 문서보다 흑백 문서 출력 비중이 높고 출력량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적당하다. 최대 20ppm의 빠른 출력 속도와 토너·드럼 분리형 설계를 통한 유지비 절감, 브라더만의 용지 걸림 최소화 기술은 지갑이 얇은 대학생에게 저렴하면서도 막힘 없는 출력을 지원한다. 또 버튼 한 번으로 신분증 양면을 용지 한 페이지에 복사할 수 있는 신분증(ID) 복사 버튼 및 전문 문서를 읽기 편한 A5 팸플릿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소책자 인쇄 기능은 다양한 출력 니즈를 가진 대학생에게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HP '데스크젯 잉크어드밴티지 4625 e복합기'는 낮은 유지비로 경제성을 높였다. 흑백 장당 18.1원의 저렴한 출력 비용이 특징이다. 타사 잉크젯 프린터 대비 4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9900원의 조시기 카트리지로 HP 잉크젯 프린터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수준의 문서 출력 비용을 제공해 출력량이 많은 이들에게 적합하다.

후지제록스 프린터스의 컬러 레이저 프린터 '다큐프린트 CP205'는 비용 절감과 손쉬운 관리로 개인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다.

작은 공간에서도 고품질의 인쇄 컬러물이 필요한 개인을 위해 출시한 A4 컬러 레이저 프린터로 기존 토너보다 섭씨 20도가량 낮은 온도에서 용지에 정착할 수 있어 20%의 전력을 절감해준다.

/차상윤기자 csy@metroseoul.co.kr

윈도 8.1 깔다 태블릿 먹통 'MS 망신'

부팅 오류에 데이터 손상
출시 이틀만에 배포중단

윈도8.1 RT 버전이 출시 이틀만에 배포가 중단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 세계 동시에 선보인 윈도8.1 RT 버전이 출시 이틀여 만에 업그레이드 오류로 배포가 중지됐다.

이번 배포 중단은 윈도8 RT에서 윈도8.1 RT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부팅 오류와 데이터 손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손상을 입은 윈도RT 단말기들은 복구 드라이브를 사용해 고치기 전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난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윈도8.1 출시 행사 모습. /AFP 연합뉴스

윈도RT는 PC에 보급된 일반 윈도와 달리 태블릿 기기에 주로 탑재되는 운영체제다. MS의 태블릿 서피스 등에서 사용되지만 판매 부진과 저조한 점유율로 하향세를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중에 윈도 RT가 사장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MS 관계자는 "윈도 스토어에서 윈도8.1 RT를 삭제한 상태"라면서 "업데이트 과정에서 블루 스크린이 뜨는 원인을 본사에서 파악 중이며 배포 재개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윈도8.1 RT 사용자들은 '업데이트도 못 하고 디바이스가 먹통이 됐다', 'MS가 윈도 RT를 홀대하는 것 같다'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정문경기자 ·

가을 타는 추남들 '백팩 백허그' 뜨겁다

핫한 가방 패션…남성 옷지림별 소재·컬러 코디 요령

잘 빠진 슈트를 입든 발랄한 캐주얼 지림을 하든 남성들의 손이 허전해지기 시작했다. 올가을 두 손의 자유를 허락한 '백팩'이 패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해야 하는 비즈니스맨의 경우 딱딱한 서류 가방 대신 백팩을 메면 한결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대신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노트북 전용 가방을 활용하는 게 좋다.

타거스의 '에메랄드 그린 클러스 백팩'은 슬림한 외형에 도시적인 트렌드를 반영해 일상적인 캐주얼부터 직장인들의 비즈니스룩까지 두루 잘 어울린다. 블랙 컬러를 바탕으로 곳곳에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줘 점잖으면서도 경쾌한 분위기가 난다. 특히 가방 안에 노트북은 물론 서류·문구류 등을 분리해 담을 수 있도록 구성해 편의성을 높였다.

◆캐주얼 지림엔 컨버스 백팩

평소 클래식한 슈트보다 캐주얼한 차림을 즐긴다면 컨버스 소재의 백팩이 제격이다. 특히 큰 용량의 럭색 스타일은 청바지나 후드 티셔츠 재킹 점퍼에 매치하기 무난하다.

디엘스는 이번 시즌 유행 색상인 회색에 카무플라주 패턴을 접목한 백팩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어깨와 등에 에어쿠션을 적용해 피로감이 덜하다. 가방 앞과 양옆에 작은 포켓을 달아 버스카드 등 자주 꺼내 쓰는 물건을 수납하기도 간편하다.

캐주얼은 물론 세미정장 지림에 잘 어울리는 가죽 소재의 백팩은 좀 더 성숙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디자이너 브랜드 에이드레스는 산뜻한 오렌지 컬러의 백팩을 선보였다. 소가죽을 사용해 부드럽고 심플한 디자인에 외부 포켓으로 포인트를 줬다. 내부는 지퍼 포켓과 노트북 칸이 하나씩 있어 챙길 것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풀무원 '이씰린' 보습에센스

● 풀무원생활건강의 자연건강 스킨케어 브랜드 이씰린은 출시 13주년을 맞아 주름을 개선하고 미백 기능성을 보강한 '이씰린 노블 퍼스트 세럼(60㎖)'을 21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풀무원생활건강의 방문 판매 채널에서 월 1만 개 이상 꾸준히 팔리고 있는 인기 상품으로 세안 후 얼굴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신개념의 보습 에센스다. 가격은 6만원.

아큐브 디파인 '2+1' 이벤트

● 렌즈 브랜드 원데이 아큐브 디파인이 1000만 팩 판매 돌파를 기념해 21일부터 약 한 달간 2+1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액센트 스타일·비비드 스타일 내추럴 샤인 세 가지 스타일의 원데이 아큐브 디파인 제품 중 2팩을 구매하면 동일한 제품 1팩을 주기로 증정한다.

11번가 벼룩시장 '별난마켓'

● 11번가는 초대형 벼룩시장 '별난마켓'을 다음달 9일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일난다 '멋남' 금찌 등 50여 개 소호 브랜드의 겨울 상품이 판매된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도 일일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다.

中 모피에 눈 뜨자 국내 가격 들썩

작년보다 20~30% 인상 올시즌 매출은 늘어날듯

중국인들이 모피를 입기 시작하자 국내 모피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모피 제품은 최고급인 세이블의 경우 3000만~5000만원, 블랙그라마의 경우 700만~1000만원을 오간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가을 겨울 시즌 일반 모피 제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20~30% 안팎으로 올랐다. 소매나 모자 등을 털로 장식한 제품은 약 20~25% 뛰었다.

모피 제품 가격이 인상된 이유는 중국인들이 최근 모피를 입기 시작하면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원피가 급격히 늘어 원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10~15% 올랐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업계는 올해 모피 제품 매출이 10~15%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일반 모피와 털(퍼) 제품 등 모피 상품군의 매출 신장률을 약 15%로 예측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모피 판매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8월에만 3000만원 이상인 세이블 모피를 지난해 같은 기간(18벌)보다 두 배 많은 36벌을 팔았다. 더불어 10~12월에는 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지원기자

탐난다! 드라마 패션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의 패션은 언제나 화제를 몰고 다닌다. 최근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의 여배우들 역시 남다른 스타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KBS2 드라마 '미래의 선택'에 출연 중인 윤은혜는 깔끔한 디자인의 플랫폼 슈즈로 시선을 모았다.

윤은혜가 신은 신발은 이탈리아 스니커즈 브랜드 수페르가 제품. 슈린한 디자인으로 패션성을 한층 부각시킨 것이 특징이다.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가죽 소재의 제품 등 스타일도 다양하다.

SBS 수목드라마 '상속자들'의 김지원은 패션 그룹의 상속녀답게 화려한 '신상'을 선보이고 있다.

단연 눈길을 끈 아이템은 우아한 느낌의 가방. 이 제품은 MCM의 올가을·겨울 신제품인 '퍼스트레이디 숄더백'으로 미니 사이즈로 앙증맞으면서 오묘한 보랏빛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박지원기자

'습기 막는 방패' 두른 신개념 다운재킷

노스페이스 신제품 3종 하이벤트 소재 사용 특징

노스페이스는 올겨울 혹독한 한파 등 대비한 다운재킷 3종을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방수·방풍·투습 기능이 탁월한 하이벤트 소재를 사용해 습기에 취약한 다운의 단점을 보완, 보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스가르드 파카'(65만원)는 하이벤트 소재의 겉감과 눈을 맞거나 땀을 흘려도 다운이 젖지 않는 다운 방수 처리를 통해 내한성을 강화한 최상급 구스다운 파카다.

'브리즘 다운재킷'(49만원) 역시 하이벤트 소재를 사용했으며 구스 다운을 후드 안쪽까지 충전해 보온성을 강화했다. 경량 하이벤트 2ℓ 소재를 적용한 '시그마 다운재킷'(37만원)은 마찰이 많은 어깨 부분에 보강 원단을 써 내마모성을 높였다.

왼쪽부터 시그마 다운재킷, 아스가르드 파카, 브리즘 다운재킷

/박지원기자

슈마커 겨울부츠 할인행사

슈즈 멀티숍 슈마커는 27일까지 겨울 부츠를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얼리 버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슈마커 독점 브랜드인 주슈·테바뿐 아니라 어그·베어파우 등 패션 브랜드들이 참여한다. 오프라인 매장·온라인 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하나 Free = 호텔+항공권

호텔 선호도 1위 & 항공권 판매실적 1위

안정적인 좌석확보! 합리적인 가격!

에어텔 전세기 특선!

01	방콕 오키드 쉐라톤 ▶매일출발	5일	549,000~
02	타이페이 ▶매일출발	3일/4일	249,000~
03	도쿄 자유여행 ▶11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출발	4일	199,000~
04	마카오 자유여행 ▶매일출발	4일	349,000~
05	괌 PIC골드 ▶매일출발	4일/5일	799,000~
06	사이판 PIC골드 ▶매일출발	4일/5일	849,000~

〈자유여행만들기〉

'항공+호텔'로 예약하는 당신에게 드리는 통 큰 이벤트 1탄

★ 항공+호텔에서 예약하면 결제금액별 최대 10만원 추가적립 혜택!

행사기간 10월 14일~11월 15일

행사조건
1. 통합예약코드에 항공&호텔과 함께 예약 후 결제 완료시 적용됩니다
2. 마일리지 적립은 하나투어 마일리지 클럽회원이어야 가능합니다
3. 마일리지 추가적립은 11월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4. 5만원이상의 마일리지 적립은 제세공과금 22%를 제한 금액이 적립됩니다

- 1백만원미만 결제시: 10,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 1백만원이상 3백만원미만 결제시: 20,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 3백만원이상 5백만원미만 결제시: 50,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 5백만원이상 결제시: 100,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 1566-0034

www.hanatourist.com

조콜릿, 어디까지 먹어봤니?

커피·케이크·도넛 등 가을 신메뉴에 가득

올가을 식음료업계가 달콤한 초콜릿에 빠졌다.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이 피로 해소 및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각 업체들이 초콜릿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쌀쌀한 가을날, 달달한 초콜릿을 한입 베어 물면 몸도 마음도 사르르 녹아내린다.

이디야커피의 '민트 초콜릿'은 진한 초콜릿과 상쾌한 민트 향으로 여성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맨 위에 부드러운 휘핑크림을 올려 달콤함을 더했다. '시나몬 초콜릿'은 달콤함에 향긋한 계피 향이 더해져 가을 날씨에 딱 어울리는 음료로 꼽히고 있다.

뚜레쥬르는 가을 제철 재료와 초콜릿을 담은 '순 우리밤 초코 케이크'를 내놨다. 밤을 듬뿍 담은 무스와 고구마 무스가 어우러진 케이크로 풍부한 밤 맛이 일품이다. 던킨도너츠가 최근 새롭게 선보인 '구워서 더 부드러운 초코도넛'은 달콤한 브라우니 칩이 들어가 있어 진한 초코 맛을 느낄 수 있다. 튀기지 않고 구워서 한층 더 부드럽고 촉촉하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초콜릿은 커피와 함께 지친 일상의 피로 해소제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다"며 "선선한 가을날 편안한 힐링 타임을 즐기기에 손색없는 메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

꽃좀비들 "5성으로 모여"

핼러윈 시즌 맞은 도심 특급호텔들 신나는 호러파티 줄이어

사탕, 호박귀신, 어린이들의 앙증맞은 다양한 소품 등을 이용해 죽음의 신 '삼하인'을 찬양하는 핼러윈 파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도 낯선 문화가 아니다. 도심 속 호텔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명품 핼러윈 파티를 소개한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핼러윈데이를 맞아 25일 '바루즈'에서 '돌아온 핼러윈 루즈섬' 파티를 개최한다. 파티는 오래된 고성처럼 꾸며진 바루즈에서 DJ의 라이브 음악과 월드클래스 우승 바텐더가 선사하는 칵테일 등이 어우러진 흥겨운 파티 형식으로 진행되며 타로카드점, 페이스페인팅·다트게임 등도 준비됐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의 뉴욕 스타일 라운지 바 '조이'에서는 26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꽃보다 좀비' 콘셉트의 핼러윈 파티가 이어진다. 파티의 드레스 코드는 '꽃좀비'로, 좀비로 분장한 전문 DJ가 선사하는 뮤직 퍼포먼스, 인디밴드의 특별 공연·화려한 불 쇼가 일품인 칵테일 쇼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이어질 예정이다.

롯데호텔은 호러와 흥분을 넘나들며 가을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핼러윈 파티'를 준비한다.

롯데호텔서울은 유러피언 야외 테라스 '클럽스 프라자'에서 31일 오후 6시30분부터 11시까지 무제한 아사히 맥주와 핼러윈데이 스페셜 칵테일 등을 제공하는 파티를 개최한다. 또 리한·비쥬얼진트 등이 출연하는 '호러 인 파티 콘서트'를 다음달 1일 크리스탈볼룸(본관 2층)에서 진행하며 객실 투숙을 희망하는 고객을 위해 '핼러윈 파티 패키지'도 마련했다.

밀레니엄 서울힐튼은 정통 영국풍의 바 '오크룸'에서 핼러윈데이를 기념해 10월 말까지 '할로윈 특별 세트메뉴'를 선보인다. 또 핼러윈 당일인 31일에는 호박등을 곳곳에 놓아 핼러윈 느낌을 살리고 공포스럽게 치장한 오크룸 듀오 밴드의 라이브 공연이 함께 하는 '핼러윈 파티'를 개최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스마트 가전 체험, 홈플러스로! 홈플러스가 21일 금천점, 월드컵점, 김포점 등 7개 점포에 '체험형 스마트 가전 매장'을 선보였다. 이 매장에서는 노트북, 카메라, 내비게이션, 헤드폰 등 약 200여 종의 디지털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다. /홈플러스 제공

강강술래 '가을애 축제'서 알뜰한 외식

한우곰탕·한돈 너비아니·떡갈비 등 30~4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단풍여행·캠핑을 떠나거나 알뜰 외식을 즐기려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을애(愛)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ullae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한우사골곰탕 소용량 선물 세트(450㎖·5팩·10인분)는 1만8900원, 10팩짜리 세트(340㎖·20인분)는 3만7800원에 40% 할인 판매하며 구입 시 음인원 쥬스퀴장품(1만원 상당)을 증정한다. 대용량 곰탕 세트(800㎖·5팩·15인분)는 30% 할인된 3만78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세트, 1.08kg)는 40% 할인된 2만1600원에 판매한다. 100% 한우 갈빗살을 사용한 칠첩한우떡갈비(3세트, 1.08kg, 4만2000원)와 한우양념불고기 포장 상품(1.5kg, 4만2000원)도 30% 할인가로 내놓는다.

다음달 7일까지 고양 늘봄농원점은 한우암소스페셜 생등심·모둠구이와 강강 술래·양양념갈비 메뉴를 시키면 한우불고기를, 한돈 모듬 돼지양념구이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나갈 때 주문한 인분 수만큼 무료로 포장해준다.

상계점도 같은 기간 소고기류(한우모둠구이, 한우특갈빗살, 술래 강강·왕양념갈비)를 시키면 한우불고기를, 돼지고기류(한돈·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하면 돼지양념구이를 먹은 인분 수만큼 싸준다.

사릉점은 11월 8일까지 술래양념구이와 한돈양념구이를 시키면 각각 주문한 양만큼 같은 메뉴를 포장해주며, 한돈양념구이(500g, 1만5000원)와 돼지양념구이(500g, 1만1000원) 포장 상품도 반값에 판매한다. 매장 무료 포장 이벤트는 제피아웨 점심 특선에서는 제외된다. /박지원기자

가마솥에 달인 '산들동배고' 최대 40% 할인

건강식품 전문기업 산들건강은 산들동배고 500g이나 1kg(500g+리필용 500g)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40%를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산들동배고는 배·도라지·은행·대추·산삼 배양근 등 100% 국내산 천연 재료들을 가마솥에서 4일 이상 달여 전통 방식 그대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력, 기침을 멎게 하는 것은 물론 계와 기관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방부제·설탕·색소 등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 특히 전문 상담사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체질과 연령대에 따라 도라지동배고, 홍도라지동배고, 삼(蔘)동배고 등 자기 몸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제품은 전화(02-574-4565, 02-595-7767)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살 수 있으며, 구입 고객에게는 도라지동배고 100g을 추가로 증정한다. 문의 www.isandle.co.kr /황재용기자

뉴스&뉴스

소주 '처음처럼' 1ℓ 대용량 페트 처음 나왔네

● 롯데주류는 나들이철을 맞아 운반과 휴대가 편한 '처음처럼 1.0ℓ' 페트를 21일 출시했다. 알코올 도수는 19도로, 기존 처음처럼 페트 제품과 같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 1.0ℓ의 병당 출고가를 2627원으로 책정, 기존 640㎖의 출고가 1802.9원에 비해 100㎖당 6.5% 저렴하게 했다.

KT&G 상쾌한 캡슐담배 '에쎄 제인지' 4㎎ 선봬

● KT&G는 23일 캡슐 담배 '에쎄 제인지' 4mg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출시된 '에쎄 제인지 1mg'의 확장 제품으로 필터 안의 캡슐을 터뜨리면 상쾌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타르 함량은 4.0mg, 니코틴은 0.3mg이다. 가격은 갑당 2500원.

캐리어 가정용 미니 와인셀러 12병 보관 가능

● 캐리어냉장은 10만원대 미니 와인셀러를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냉매를 사용하지 않아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으며, 무진동 저소음으로 설계돼 집 안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와인은 최대 12병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가격은 19만9000원.

요추 질환 '튼튼미니 레이저' 시술 각광

MRI도 찾기 힘든 허리 디스크 비수술 치료의 혁명…수술 없이 미니레이저로 근본적 해결

IT 업종의 게임회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인 김모(39)씨는 하루 12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한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던 김씨는 지난여름까지 아무 이상이 없던 허리에 최근 심각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해 가까운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한 결과 김씨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와 약간의 디스크 돌출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꺼려하던 김씨는 계속되는 통증에 답답함을 호소했고 결국 자신과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던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 튼튼병원일산에서 '튼튼 미니(미세)레이저디스크 시술'을 받았다.

◆직접 관찰하며 디스크 제거해 효과적인 시술

튼튼 미니(미세)레이저 디스크 시술이란 직경 3mm의 가느다란 관에 1mm의 초소형 내시경과 미니레이저를 장착한 후 이를 환자의 꼬리뼈에 삽입해 디스크 병변으로 접근한 후 레이저를 이용해 디스크를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시술은 진도의가 고화질의 동영상 모니터로 병변을 관찰하면서 환자와 대화하며 증상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국소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을 두려워하거나 수술이 어려운 심장질환, 고혈압·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고령의 환자들도 시술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시술은 디스크에 의한 신경 압박으로 통증이 심할 때 효과적이며 디스크 파열·급성 만성요통,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 환자들뿐만 아니라 MRI상 관찰되지 않은 신경 유착, 섬유화된 디스크 조직, 부종과 염증 등 요추부 질환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술은 가는 도관을 삽입해 시술 후에도 상처가 거의 없고 시술 후 환자가 30분~3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면 바로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빨라 직장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범석 튼튼병원일산 병원장은 "내시경을 사용해 병변을 육안으로 확인하며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척추 시술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것이 최고의 장점"이라며 "시술 후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 /황재용기자

튼튼병원일산 서범석 병원장 미니레이저디스크 시술 장면

튼튼병원일산 서범석 병원장 진료하는 모습

돌연사, 내 몸안에 '비극 예고편' 있다

가을 환절기 40~50대 남성 다발 심근경색·뇌졸중 등 위험관리를

밴드 들국화의 드러머 주찬권씨가 지난 20일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돌연사로 담졌다. 돌연사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처럼 일교차가 커지고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돌연사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평소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돌연사는 40~50대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돌연사 원인 중 90%는 심장질환이다. 그중 심근경색이 가장 많은데 심근경색이란 관상동맥이 혈전(피떡)으로 막혀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태다. 심근경색은 가슴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나 구토, 호흡 곤란 등을 동반하고 부정맥이나 협심증 등이 그 전조 현상이다.

이와 함께 뇌졸중도 돌연사의 원인이 된다. 따뜻한 실내에 있거나 자는 동안 이완된 근육과 혈관이 갑자기 추운 공기와 만날 때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 발생한다. 뇌졸중으로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특별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런 돌연사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미리 질병을 찾아내 치료받는 것이다. 또 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흡연 등 돌연사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무엇보다 흡연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혈액순환이 피부로 집중돼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사우나나 찜질방 이용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으며 만약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핑' 도는 느낌이 든다면 몸이 위험하다는 신호로 알아야 한다. 또 평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상호 한림대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요즘은 돌연사가 나타나기 쉬운 시기"라며 "유산소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 건강을 관리해야 하며 심근경색 발병 초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급증하는 구강암 원인은 '흡연·음주'

둘다 즐기면 발병위험 30배 비흡연 환자는 HPV가 원인

구강암은 최근 증가하는 암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년에 걸쳐 무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젊은층의 구강암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구강암은 입 안에 생기는 모든 암을 말하는데 그 원인은 흡연과 음주다. 지속적으로 하루 한 갑 이상 흡연을 하면 비흡연자에 비해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10배 이상 높다. 실제 구강암 환자의 75%는 흡연자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흡연과 음주를 같이 할 경우 구강암 발생 위험은 약 30배 이상 높아진다.

게다가 최근 자궁경부암의 중요한 원인 인자인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구강암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구강 내 감염된 HPV가 장기적으로는 구강암 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젊은층 비흡연자에게서 구강암이 발생됐다면 HPV 감염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구강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할수록 치료율도 높고 절제 범위가 작아 수술 후 구강의 생리적 기능 회복이 그만큼 빠르다. 특히 구강암 중 가장 비중이 큰 설암은 혀 일부를 제거해야 하므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진이 필요하며 평소 구강 위생을 청결히 해야 한다. 또 과도한 음주와 흡연,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육류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황재용기자

이 영화는 내 20~30대 성찰 캐스팅 번번이 거절당할땐 멘붕

28년차 배우 박중훈 '톱스타'로 감독 데뷔

28년차 배우 박중훈(47)이 감독이라는 새 직함을 달고 대중 앞에 선다. 24일 개봉될 영화 '톱스타'를 통해서다. 연출뿐 아니라 각본까지 직접 맡아 연예계 뒷이야기를 리얼하게 담아낸 그는 "지금 꼭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에 도전했다"고 감독 변신의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관심사는 오로지 개인적 성취

1986년 영화 '깜보'로 데뷔해 30년 가까이 톱스타로 살면서 수십 편의 영화를 내놨지만 어느 때보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오랜 기간 배우 생활을 했기에 결과를 받아들이는 훈련은 돼 있는데… 이번만큼은 부담이 돼요. 감독은 최종 결정권자인 동시에 책임자니까요. 내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작품을 내놓는다는 것도 부끄럽고, 기본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걱정도 했죠. 안 쓰던 근육을 쓰면 근육통에 시달리는 것처럼요."

이 영화는 연예계를 배경으로 성실하고 우직한 매니저 태식(엄태웅)이 우연히 오랜 배우의 꿈을 이루고 톱스타가 되지만, 점점 커져가는 욕망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섬세하면서도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그려냈다.

특히 영화는 일명 '현찰 배우'로 불리는 끼워팔기 캐스팅, 원준(김민준)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등 실제의 사건과 인물을 떠올리게 하는 에피소드를 넣어 리얼함을 더했다.

"연예계는 정말 치열한 곳이죠. 성공에 대한 욕망이 큰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 같아요. 예전 내 관심사도 인기와 돈·명예 등 오로지 개인적인 성취였어요. 그로 인해 본의 아니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됐죠. 태식은 내 20~30대의 모습이랍니다."

◆5년 구상·2년 6개월 시나리오 작업

비록 선배지만 배우 출신 감독은 꿈도 꾸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배우로 활동하면서 답습하는 느낌을 받아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때야 비로소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다고 했다.

그렇게 이 영화는 박중훈의 5년간의 구상과 2년 반의 시나리오 작업 끝에 탄생했다. 다행히 이달 초 열린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의 '한국영화의 오늘-파노라마' 섹션에 초청되는 등 감독 데뷔작으로는 손색없다는 평을 받았다.

"한 분야의 주연을 20~40대까지 30년 가까이 했으면 함량 미달의 작품을 내놓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감독을 판사라고 치면 배우인 난 변호사를 28년간 한 셈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도 테크닉적으로는 역할 수박에 있어서 배우로서 제가 가장 잘하는 인물의 감정 전달에 중점을 뒀죠."

배우 출신 감독이라는 점은 영화를 더욱 섬세하게 연출하는 데 이점이기도 했다. 특히 배우였던 경험을 활용해 출연진들의 연기를 최상으로 이끌어내는 데 탁월했다.

"배우 출신 감독 앞에서 연기하는 게 어려웠을 거라는 걸 이해해요. 그래서 서로 교감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죠. 한편으로는 배우 출신 감독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화에 잠깐이라도 나오지 않은 이유는 제 감정이 아닌 생각만을 철저히 보여주고 싶어서였죠."

> 연예계 정상 향한 욕망·몰락 그려
> 끼워팔기 등 리얼한 에피소드 더해
> 각본까지 맡아… 첫 연출 걱정됐죠

◆두번째 작품 기회된다면 OK

영화를 연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자 의외로 캐스팅을 꼽았다. 태식 역은 처음엔 20대 배우로 생각하고 캐스팅을 시작했는데 번번이 거절당하자 30대로 다시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쑥스러움과 용기를 오가면서도 기본적으로 선한 이미지의 배우가 누가 있을까 떠올리고는 1순위로 엄태웅을 점했다.

"캐스팅 외뢰만 받다가 배우에게도 아니고 매니저에게 대신 거절당하는 과정을 여러 번 겪었더니 그야말로 '멘붕'이 왔어요. 영화가 제작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정말 울고 싶었죠. 항상 웃고 있어서 별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지난 2년 반은 고통스러웠어요. 올림픽 선수들이 10분을 보여주기 위해 4년을 치열하게 연습하듯 저 역시 그랬죠."

이제 남은 것은 이번 영화에 대한 관객의 반응과 앞으로 박중훈 감독의 또 다른 작품을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중훈은 "내 이야기를 두 번 하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감사하게도 두 번째 작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원환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박동희(라운드테이블) 디자인/박은희

star bag

"얼애라뇨? 진한 동료일뿐"

배우 천정명(오른쪽)과 김민정이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부인했다.

21일 열애설이 불거지자 양측 소속사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동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두 사람이 SBS 드라마 '패션 70s'를 통해 인연을 맺은 뒤 17일 개봉한 영화 '밤의 여왕'에 함께 출연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해 10개월째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 팬미팅에 1500명 몰려

걸그룹 에이핑크가 대만 팬들과 함께한 첫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들은 2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2013 에이핑크 대만 팬미팅'을 열고 현지 팬 1500명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데뷔곡 '몰라요' 무대를 비롯해 약 3시간에 걸쳐 공연, 토크, 이벤트를 꾸몄다. 25일에는 싱가포르에서 팬미팅을 연다.

대마 혐의 징역 1년에 항소

DMTN 다니엘이 대마 흡연 및 알선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나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장이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보내진 후 조만간 기일이 결정되면 다니엘은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저작권 침해로 작가협 제명

SBS 드라마 '야왕'을 집필한 이희명 작가가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제명 처분을 당했다.

협회는 21일 "2월 협회에 '야왕'의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저작권침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저작권 침해가 맞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작가는 '야왕'을 비롯해 같은 방송사의 '육란방' '왕세자' '토마토' 등 유명 드라마의 극본을 썼다.

<중국어로 사랑해요>

7만명 외쳤다 "워아이 소시·슈주"

SM타운 베이징 공연 새 역사

경호인원만 1만6000명 최다 지하철·버스 연장운행 이례적

글로벌 K-팝 주역들로 막강 라인업을 꾸린 'SM타운 라이브'가 중국 베이징에서 공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강타·보아·동방신기·슈퍼주니어·소녀시대·샤이니·에프엑스·엑소·장리인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10팀이 꾸민 합동 공연이 19일 베이징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됐다. 7만여 명의 관객이 중국 최대 공연장을 가득 채웠고 49곡의 화려한 무대에 감동과 찬사를 쏟아냈다.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3 인 베이징'은 규모 면에서 국내외 공연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46명의 아티스트와 16명의 댄서, 190명의 스태프 등 총 252명이 공연을 꾸몄다.

공연장 안전 유지를 위해 공안 1만 명과 전문 경호업체 직원 6000명이 투입됐고 자원봉사자 2000명을 포함해 1만8000명이 경호를 맡았다. 베이징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된 공연 사상 최다 경호 인원이라고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밝혔다.

베이징시는 이례적으로 이번 공연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 및 버스의 연장 운행을 결정했다. 공연장 부근의 지하철 8호선과 야외를 경유하는 전체 버스 노선의 운행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했다.

이번 콘서트는 베이징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첫 무대인 데다 해외 가수 최초로 펼친 단독 공연이라는 점에서 공연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SM타운 라이브는 K-팝을 대표하는 합동 공연 브랜드로 2011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최초 단일 브랜드 공연을 개최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아시아 가수 최초로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공연을 치렀다. 26~27일에는 일본 도쿄돔에서 11만 관객과 만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HOT PHOTO

이효리 '짙어진 섹시미' 새 신부 이효리가 아찔한 란제리룩 화보를 공개했다. 이상순과 신혼여행을 가기 직전 촬영한 한 란제리 패션 브랜드의 잡지 화보에서 속옷 위에 재킷 아우터만을 걸치고 과감한 포즈를 선보여 결혼 후 한층 더 농염해진 섹시미를 뽐냈다.

/코스모폴리탄 제공

▶ 새 신부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유진현기자 tak0427@

고 김현식 미발표곡 23년만에 공개

고 김현식(사진)의 미발표곡이 사후 23년 만에 공개됐다.

동아기획은 21일 "김현식의 미발표곡을 담은 앨범 '김현식 2013년 10월 어 오늘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 앨범에는 '그대 반듯이' '외로운 밤이면' '수' '이 비람 속에서' '내 사랑 어디에' 등 비공개 신곡 9곡을 비롯해 죽음을 목전에 두고 병실과 자택에서 기타를 치며 라이브로 부른 기존 발표곡 12곡이 담겼다.

/유진현기자

들국화 주찬권 '천국으로 행진'

돌연 별세… 사인 불명

들국화의 드러머 주찬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가요계와 팬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밤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들국화 보컬 전인권을 비롯해 백두산의 기타리스트 김도균, 부활 보컬 정동하 등 동료 음악인들이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이튿날 새벽까지 슬픔을 나눴다.

후배 뮤지션들을 비롯한 연예계 스타들은 21일 새벽부터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고인과 친분이 두터웠던 김장훈은 미투데이에 "이걸 어떻게 뭐라고 할 말이… 충격 때문에 숨이 잘 안 쉬어지네요. 찬권이 형 아"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드러머 출신인 장기하와 얼굴들의 보컬 장기하는 트위터에 "선배님과 선배님의 드러밍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맑은 표정과 말투는 가슴에 새기고 배우는 자세로 음악하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언제 어디에도 없은 연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가수 윤종신, 정재형, 작곡가 김형석, 자우림의 김윤아, 배우 박중훈, 장진 감독, 개그맨 남희석 등도 글을 올려 고인을 애도했다.

고인은 20일 홀로 거주하는 성남 분당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사인은 원인 불명의 급사로 판명 났으며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발인은 22일이고 장지는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이다.

/유순호기자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주찬권의 빈소에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뉴시스

'꽃할배' 여배우들 준비는 끝났다

특집편서 동유럽 정취 소개 다음달 초 크로아티아 출발

케이블 tvN '꽃보다 할배'를 잇는 배낭여행 프로젝트 2탄 '여배우 특집'(가제)이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격한다.

tvN 측은 21일 "'여배우 특집'의 촬영을 위해 나영석 PD 등 제작진이 최근 크로아티아를 여행지로 확정하고 답사를 마치고 돌아왔다"며 "윤여정·김자옥·김희애·이미연과 짐꾼으로 활약할 이승기와 함께 다음달 초 여행지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말 전파를 탈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 5%를 넘으며 높은 인기를 모았던 '꽃보다 할배'의 후속이라는 점에서 방영 전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순재·신구·박근형·백일섭 등 '할배'들의 유럽과 대만 여정과는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출자인 나영석 PD는 "꽃보다 할배 첫 여행지였던 서유럽 일대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 동유럽의 정취를 소개하고 싶었나.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국적 색채가 강렬하게 느껴지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유산이 공존해 여배우들의 낭만적인 여행지로 적격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들과 이승기씨의 조합이 흥미로운 화학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볼거리가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돌아오겠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한편 4일까지 유럽 편과 대만 편을 마친 '꽃보다 할배'는 '여배우 특집' 방영 후인 내년 1월 새로운 여행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윤여정 · 김자옥 · 김희애 · 이미연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이범수·윤아 '20세차 로맨스'

'총리와 나' 주인공 출연

배우 이범수(사진 왼쪽)와 소녀시대의 윤아(오른쪽)가 스무 살 차이를 뛰어넘어 로맨스를 만들어간다.

두 사람은 12월 방송될 KBS2 새 월화극 '총리와 나'(가제)의 남녀 주인공으로 결정돼 이달 말 촬영에 들어간다. '총리와 나'는 탁월한 업무 능력은 지녔지만 자녀 양육에는 전혀 재능이 없는 총리 권율(이범수)이 힘겹게 세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다 조보 여기자 남다정(윤아)과 우연한 스캔들로 인해 부부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드라마에서 따뜻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해온 이범수는 이번 드라마에서 품격 있는 아빠 신드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너는 내 운명' '9회말 2아웃' '사랑비'에서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준 윤아는 엉뚱하고 어수룩한 모습으로 색다른 매력을 선할 예정이다.

이 드라마는 알콩달콩한 로맨스와 훈훈한 가족애로 연말 안방을 공략할 예정이다. '남자 18세' '아가씨를 부탁해'의 김은희·윤은경 콤비가 대본을 집필하고 '광고천재 이태백'의 이소연 PD가 연출을 맡는다.

/유순호기자 suno@

'기황후' 하지원 우아+강렬

MBC 새 월화극 '기황후'의 하지원이 기황후로 변신한 모습을 처음 공개했다.

하지원은 21일 공개된 포스터에서 마음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칼을 쥐고 서서 우아함 속 강인함을 간직한 기황후를 표현했다. 이달 초 경기도 안성 일죽 세트장에서 진행된 포스터 촬영에서 휘날리는 붉은 천을 제대로 활용해 촬영을 마쳐 현장 관계자들의 박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28일 첫 방영될 이 드라마는 원제국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고려 여인 기황후의 사랑과 투쟁을 다룬 50부 대작이다. '대조영' '자이언트' '샐러리맨 초한지' 등의 수작을 통해 선 굵은 필력으로 인정받은 장영철·정경순 작가가 집필을 맡고 하지원을 비롯해 주진모·지창욱·백진희 등이 출연한다.

/탁진현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I went to see my doctor for a check-up. 병원에서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저는 검진을 위해 제 주치의를 만나러 갔었어요.
그는 제게 4시간마다 이 알약들을 복용하라고 했어요.
의사가 저에게 운동을 많이 하라고 조언했어요.
의사는 제가 창백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건 그냥 모기에 물린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I went to see my doctor for a check up.
He told me to take these pills every four hours.
The doctor advised me to get plenty of exercise.
The doctor said I looked pale.
It's just a mosquito bite.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대화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What did the doctor tell you?
B. He told me 이 알약들을 복용하라고 every 4 hours.

정답 to take these pills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 went to see my doctor for [a check up / an eye examination]
2. The doctor said I looked [pale / worried and nervous]

일반동사 과거시제 부정문

▶ 동사원형 앞에 didn't를 쓰며 '~하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주어	동사
I	didn't ~
you/we/they	
he/she/it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didn't watch the baseball game.
   난 그 야구 경기를 보지 않았어.
2. You didn't wash your hands. 너 손 안 씻었구나.
3. Jenny didn't work yesterday. 제니는 어제 일을 안 했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Carro Rentals offers flexible rate plans that make renting a car easy, whether for business _______ pleasure.

(A) or (B) and
(C) if (D) either

02. Weekend passes to Lawton Amusement Park are _______ for six months from the date of purchase.

(A) valid (B) accurate
(C) original (D) actual

01 카로 렌탈은 업무용이든지 여행용이든지 차 대여가 쉽도록 유연한 요금제를 제공한다.
해설 whether와 함께 쓰여 '~이든지 ~이든지'를 나타내는 (A) or를 쓴다.
어휘 flexible 융통성 있는 rate plan 요금제
정답 (A) or

02 로턴 놀이공원의 주말 입장권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해설 문맥상 입장권이 유효한기 적합하므로 (A) valid를 써야 한다.
어휘 pass 출입증, 입장권 valid 유효한 accurate 정확한 original 원래의 actual 실제의, 사실상의
정답 (A) valid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1 문장 읽기

발음에 유의하여 읽기

지문 속에 나오는 발음하기 어렵거나 실수하기 쉬운 발음의 어휘들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 지명 및 주소 등의 읽는 방법을 정확히 익히면 전체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 숫자 읽기

연도, 금액, 전화번호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숫자들을 올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783	seven hundred eighty-three	25%	twenty-five percent
1992	nineteen ninety-two	2010	two thousand ten
$3.99	three dollars ninety-nine cents	Ext.36	extension thirty-six
28 C	twenty-eight degrees Celsius	38 F	thirty-eight degrees Fahrenheit

1-800-345-7892 one eight hundred three four five seven eight nine two

사자 막강전력 vs 곰 팀워크

삼성 3연속 통합우승 도전
두산은 첫 4위 뒤집기 노려
24일 대구구장서 첫판 대결

배영수(왼쪽)와 유희관

'지존' 삼성 라이온즈와 '뚝심' 두산 베어스가 한국프로야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한 막판 대결을 벌인다.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4승제)가 24일 대구구장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삼성과 두산 어느 팀이 우승컵을 가져가더라도 국내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기록으로 남게 돼 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프로야구 출범 후 최초로 정규리그 3년 연속 우승의 영광을 안은 삼성은 첫 3년 연속 정규리그+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는 두산은 사상 첫 정규리그 4위 팀 한국시리즈 우승을 노린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삼성이 두산에 9승7패로 앞서 있으며, 한국시리즈에서는 2005년 한 차례 맞붙어 삼성이 4전 전승을 거둔 바 있다. 두산의 전신인 OB는 프로야구 원년 첫해인 1982년(4승1무1패)과 2001년(4승2패) 각각 삼성과 격돌해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삼성이 우세하다. 우선 마운드에서 두산을 압도한다. 에이스 배영수(14승)를 비롯해 윤성환·장원삼(이상 13승), 차우찬(10승) 등 10승대 투수 4명이 포진한 무게감 있는 선발진에 안지만·심창민·오승환이 버티는 뒷문도 빈틈이 없다.

타선에서는 올 시즌 두산을 상대로 3할이 넘는 타율에 6홈런 16타점을 합작한 최형우와 채태인이 날을 세우고 있다.

반면 두산의 최대 강점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단단해진 팀워크다. 끈끈한 조직력과 벤치 파워를 앞세워 기적을 노린다.

여기에 삼성전 전문 투수로 불리는 더스틴 니퍼트와 유희관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 니퍼트는 3전 전승에 평균자책점 1.89, 유희관은 2승1패에 평균자책점 1.91로 강세를 보였다.

한국시리즈 1~2, 6~7차전은 대구구장에서, 3~5차전은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LG '가을 짧았지만 값진 경험'

LG 트윈스가 후반기 막판 한때 삼성 라이온즈에 2.5경기 차로 앞섰을 때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이 눈앞에 오는 듯했다. 그러나 삼성의 뒷심은 강했고 LG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두산 베어스를 힘겹게 누르고 2위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잡았다.

아쉽지만 LG의 가을 꿈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났다. 11년을 기다린 LG 팬들에게는 신나는 축제였고 설렘이었다.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김기태 감독, 이병규와 박용택 등 베테랑 선수들에게도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모양이다. 가을의 파란 하늘처럼 희망도 눈부셨다.

그러나 이런 설렘은 커다란 긴장감으로 반전됐고 경기에 그대로 투영됐다. 두산에 1승3패 패퇴. 1승은 리다메스 리즈의 역투로 2-0 승리를 거두었지만 나머지 3패는 스스로 무너졌다. 수비·주루·번트 등 세밀한 플레이를 못 한 데다 실수까지 겹치며 무릎을 꿇었다. 어쩔 수 없는 긴장감이 불러온 실패였다.

적어도 플레이오프만 본다면 LG의 경기력은 낙제점 수준이었다. 두산도 실수가 적지는 않았지만 LG의 실수가 훨씬 많았다. 선수들은 안간힘을 썼지만 행운도 LG 편이 아니었다. 경기가 끝나자 끝내 눈물을 흘리는 선수도 있었다. 허무한 결과에 야구장 혹은 야구장 밖에서 응원하던 LG 팬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야구는 기쁨과 아픔이 교차하는 인생이다. 아픈 경험은 치유를 위한 쓴 약이다. LG는 올해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염원한 약자가 아닌 새로운 강자로 올라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신뢰감과 견고한 팀워크, 희생의 야구로 새로운 가능성을 알렸다.

그래서 LG의 가을은 아주 짧게 끝났지만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같은 아픔은 되풀이하지 않는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패배를 밑거름 삼아 또 다른 LG 야구와 내년 가을을 준비할 것이다. 더 큰 희망을 꿈는다는 점에서 2013년 LG의 가을은 그리 잔인하지 않았다.

/이진호(야구전문기자)

이시영(왼쪽)이 21일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복싱 여자 일반부 플라이급(51kg) 8강전에서 김하율과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시영 판정패 체전 4강 좌절

배우 복서 이시영(32·인천시청)이 전국체전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시영은 21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복싱 여자 일반부 플라이급(51kg) 8강전에서 김하율(19·충주시청)에게 1-2 판정으로 패했다.

이날 경기는 두 선수의 리턴매치로 관심을 모았다. 4월 국가대표 선발전 라이트플라이급(48kg)에서 맞붙어 이시영이 승리한 바 있다. 그러나 젊은가들어 예상했던 대로 저돌적인 인파이팅을 구사하는 김하율이 바뀐 국제복싱협회 채점 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승기를 잡았다.

경기 후 이시영은 "오른쪽 어깨가 빠졌지만 자주 쥐던 일이라 내가 직접 끼워 넣었다. 자주 있는 일이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 승부를 떠나 강한 투지로 화제를 모았다.

/유순호기자

박태환 5관왕까지 금 2개 남았다

'마린보이' 박태환(24·인천시청)이 전국체전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며 5관왕을 향해 순항했다.

박태환은 21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m에서 1분46초42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 기록 1분44초80에는 못 미쳤지만 체전 기록 1분50초04는 경신했다. 박태환은 한 수 위 기량으로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은메달은 1분50초06을 기록한 양준혁(서울대·서울), 동메달은 1분50초39로 터치패드를 찍은 권오국(전남수영연맹)에게 돌아갔다.

박태환은 22일 계영 800m와 24일 혼계영 400m에서도 우승을 노린다.

/유순호기자